

Ἡ Ὁμολογία τῆς Ἐκκλησίας τῆς Ἀρχαίας Ἐκκλησίας 정원 이야기 2부

© 2024 케네스 매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세션 3B, 정원 이야기, 창세기 2:4-3:24입니다. 3과 2부.

우리 는 2장 24절과 25절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2장의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위한 열매 맺고 아름답고 유익한 환경을 묘사했습니다. 정원을 재현하고 가꾸는 정원.

그러므로 24절에 이르면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합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재료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다시 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성관계를 통해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독특함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를 낳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지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탈이 있고 번역이 통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착을 번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나는 쪼개진다는 말을 좋아한다. 떠나고 갈라지는 것. 떠나고 갈라지는 것.

떠나다(떠나다)와 결합하다(결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의 맥락에서 발견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게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그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 헌신, 상호 행복, 상호 사랑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합, 새로운 연합,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언약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우리는 그들의 자녀 안에서 스스로를 재생산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족 지원 네트워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 문화와 관습에서 알 수 있듯이 떠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에게 더 큰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가족, 씨족, 종족의 각 영역에 대한 충성심이 배우자에 대한 헌신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제 25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남자와 그의 아내, 히브리어 본문의 남자와 그의 여자가 둘 다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범한 죄를 지은 후의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Eve는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후의 관점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와 모세가 히브리 민족 1세대와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오경이 함께 나오는 후일의 독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음에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7절에서 죄를 범한 후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던 남자와 여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것과 대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음에 따른 수치심을 되돌리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배우자와 함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반전됩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서구 문명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벌거벗음이 인류의 완고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거벗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벌거벗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벌거벗음이 허용되지 않는 때이며,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필요한 옷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가 옷을 입도록 의도하신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3장은 정원의 새롭고 예상치 못한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지금 뱀을 읽으면 이것이 새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간교하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럼 뱀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뱀이 누구인지 말할 수도 있습니까? 간사하다, 만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며 뱀이 말하여 여자를 꾀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의 이 구절은 재앙 속에서 우주적 창조질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세대에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재앙적이고 격변적인 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미국 최고의 세대에 속해 있었는데,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 세대를 특징짓는 것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진주만이 일본에 의해 폭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으로 터졌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63년 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968년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되고 존 케네디의 형제인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된 때일 것입니다. 1968년 구정 공세(Tet Offensive)라고 불리는 베트남 전쟁의 주요 혼란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청취자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2001년 9-11 사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펜타곤 두 개의 탑을 파괴한 후 파괴를 시도하여 펜실베이니아에서 네 번째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끄는 것은 각 세대가 의심할 바 없이 현재의 젊은 세대가 발생한 팬데믹, 팬데믹 이전, 팬데믹 이후를 항상 기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래에 더 큰 혼란과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세대에 흔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홍수 전과 홍수 후 세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타락 전 세계와 타락 후 세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에서 발생한 극적이고 충격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한 우주적 트라우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의 2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뱀.

뱀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뱀은 독립적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2절의 혼돈은 성령의 맴돌고 있는 임재 아래서 묘사됩니다. 신의. 여기서 이 뱀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뱀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뱀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여자에 대한 적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수를 동물 뱀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사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뱀의 행동과 성격을 취하여 그것을 악인 사탄과 비교해 보면, 뱀이 사탄을 대표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충분한 상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과 기독교 해석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뱀을 사탄으로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그것은 분명히 3장 15절을 가리킵니다. 음, 여러분은 그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구절의 후반부가 됩니다. 여자의 소생인 그 사람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의 후손이 구원자의 발꿈치를 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모든 유대인과 기독교 해석가들이 뱀을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탄, 즉 뱀, 뱀은 지혜와 악의 모호함을 지닌 고대 세계와 성경을 대표한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설정한 것입니다. 독자는 말하자면 세계의 어떤 야생 동물보다 더 교활하고 능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가치를 지닌 뱀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물론 뱀은 악하고 하나님의 대적이었으며, 그러면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기사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뱀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적, 이스라엘 자체의 대적으로 소개된다는 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독자로서 여러분에게 3장 1절에서 이것이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읽는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자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뱀이 말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고,

독자로서 우리는 뱀이 행하는 사악한 계획을 매우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있습니다. 이제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뱀은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뱀이 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뱀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뱀이 실제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해, 즉 사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뱀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뱀은 인류의 대적, 선과 번영의 대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상징으로서 독자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뱀이 단지 상징일 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역사적 현실, 즉 악한 존재의 존재에 대한 대표적인 언어나 단어 또는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뱀이 악의 원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석가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추상적 아이디어는 실제 사물에서 특별히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과 같습니다. 따라서 추상화의 일부 측면은 정직, 선함, 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추상화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란 무엇인가? 추상시를 쓴다면 구체적인 것은 시인의 시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추상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3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존재의 수명에 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4절 끝부분에는 뱀의 역사와 수명을 언급하여 너희 평생 동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7절에서 사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17절 끝 부분에서도 당신의 평생에 걸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체적이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악한 존재를 대표하는 뱀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악의 기원에 대한 신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경이 악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에 속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한 차원에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선 선과 악 사이의 진정한 이원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악, 그리고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의 근원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악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죽음이나 전염병 또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홍수와 같은 다른 격변적인 사건에 대한 심판을 가져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칙적으로 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제 꼼꼼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교활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영리한 뱀이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명령, 즉 구체적인 금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 나는 여러분이 이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고 관대하신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긍정적입니다. 16절을 좀 더 구체적이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17절에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자를 꺾고, 속임수로 여자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녀 앞에 어떤 생각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여자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먹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구조에서는 발톱의 머리 부분에 부정문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동산에 있는 어느 나무에서나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대함에서 인색함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대답했고, 3절에서 여자에 대해 약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에 언어를 더하였으니 만지지 말라 하였느니라. 2장 17절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명령에 말씀하신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기록의 첫 번째 독자들의 관점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칭찬할 만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보기 흉하거나 부적절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것은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도 없다고 말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으로 비취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은 꽤 담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임수에서 대담한 거부로 나아갑니다.

아니,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것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을 아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고대세계에서는 신들이 누렸던 영생을 추구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먹으면 유익을 얻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암시된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혜와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알기 때문에 순진함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결백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목표와 반대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3장 22절에 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신탁 이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뱀이 옳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 지혜의 결과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를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 복종하는 정신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그것을 관대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사람이 결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불순종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그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 남자와 그와 함께 있던 여자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나온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메아리죠, 그렇죠? 그는 자기가 진토 가운데서 옮겨졌으니 이제는 쫓겨나리라 하였느니라.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그와 그 여자는 영원히 정원 밖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원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정원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뭔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주적 혼란과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 깨어진 관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염두에 두셨던 것, 즉 이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고 그들의 창조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추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구원자를 개입시켜 그 심판을 뒤집으시는 수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신 후에 하늘의 존재들과 그룹들과 앞뒤로 도는 화염검을 두어 에덴동산 동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으로 영원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유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 것을 주목하라. 글썄요, 추측할 여지는 많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금지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결국 2장에서는 금지 사항을 남자에게 주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추측이 있습니다. 뱀과 남자가 대화하는 동안 남편은 어느 정도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자는 과일을 먹는 것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속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단지 주님의 명령을 고의로 거역하여 그것을 먹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죄는 단순히 첫 번째 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근원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서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덴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본성은 그들 부모의 죄의 본성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자체 내에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3장과 4장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최초의 독자인 창세기의 독자들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친족을 죽이는 형제 살해는 지역 사회 측에서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끔찍한 불충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대적한 경우와 같이 계획적인 살인에 관해서는 공동체가 유죄를 선고한 당사자에 대해 사형이라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장들을 계속해서 읽어 보면, 죄와 사악함과 가혹함이 증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악함을 끝내실 홍수를 가져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행하고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자체, 즉 남자와 여자가 죄인이 되어가는 이야기, 즉 죄의 근원이 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고 이 잘못된 해석에서 원죄 개념을 끌어내는 것은 단순히 후기 기독교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서사적 질감을 살펴보세요. 2장을 보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여자를 낳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뱀을 포함한 동물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입니다. 하나님, 남자, 그다음 여자, 그리고 마지막 뱀. 그러나 이는 3장에서 반전된다.

그러므로 여자를 다스리는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여자가 남편인 남자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서술적 질감과 심판의 신탁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복종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우리는 심판의 신탁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취하고, 뱀의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로 기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굴욕의 표시이며 흙을 먹습니다.

흙을 먹으면 흙으로 인간의 창조를 되돌리는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며, 흙을 없애기 위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싸움이 벌어진다. 물론 16절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심판에서 교훈이 되는 점은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도 16절에서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일하던 남자가 이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듯이 그도 수고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존을 바라시는 대로 음식과 생계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여러분의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은 후에 다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죄로 인해 혼란에 빠진 것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은 기독교 신학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이다.

이 경우에 살펴보아야 할 가장 좋은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느니라.

확실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누구의 계좌에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멈춰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보편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모세가 십계명을 주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 죄는 이미 세상에 있었으므로 죄는 에덴동산에 있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5장에는 아담과 그의 아들 셋의 창조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셋의 자손 목록에는 각각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고 또 죽었습니다. 5장의 족보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서 모세의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나 모세 때부터 아담과 같이 계명을 어겨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글쎄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십계명 중 하나입니다. 그는 특정한 법, 즉 법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금지 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4절에서 누가 장차 올 자의 예표요 모형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첫 인간인 아담과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이것을 밝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그러하였으리라,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새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토록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죽음 너머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는 얼마나 더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 연대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고대 세계 사람들의 정신과 관습의 일부였으며, 한 사람으로서 전체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 가족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모든 인류 가족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사이에 대속적인 속죄나 화해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는 단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조적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 증거는 우리의 죄됨, 곧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찾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율법을 가져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원죄와 그에 따른 원죄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션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3장과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에덴동산에서 발생한 죄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에덴동산 밖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세션 3B, 정원 이야기, 창세기 2:4-3:24입니다. 세션 3, 2부.